

결혼일이 '123123' ...세밑 결혼식 급증



▲ 라스베이거스의 한 웨딩 체플. 사진=shutterstock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급증했다. 날짜를 월·일·연도 순으로 표기하는 미 관습상 지난해 마지막 날은 '12/31/23'으로 표기되는데, 이 경우 1, 2, 3이 두 차례 반복돼 특별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이 일요일인 것도 이날 결혼 급증에 기여했던 분석이다.

라스베이거스 '베이거스 웨딩'의 멜로디 윌리스 윌리엄스 사장은 "이런 특별한 날짜는 늘 인기가 엄청나다"며 "이번 새해 연휴 결혼식 수요가 평소의 2~3배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특별한 숫자가 들어간 다른 날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이 급증한 바 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클라크 카운티 혼인 신고실'에 따르면 역대 가장 인기 있었던 날은 2007년 7월 7일이다. 이날엔 모두 4,492쌍이 결혼했으며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던 2011년 11월 11일엔 3,125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 22일에는 2,331쌍의 커플이 결혼, 라스베이거스 역사상 6번째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클라크 카운티 혼인신고실의 2018년 이후 12월 31일 결혼 건수는 연간 450~550건 수준이었다.

린 마리 고야 클라크 카운티의 등록 담당자는 "주말에 세밑 흥겨움이 더해진 이번 연말연시는 수년래 가장 떠들썩한 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술 덜 마시는 Z세대 ... 맥주 판매 대폭 감소

미국의 지난해 맥주 출하량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시장조사업체인 맥주 마케터스 인사이트를 인용해 미국 맥주 출하량이 지난해 1~9월 기준 5% 넘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젊은 성인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 술을 덜 마시고, 맥주보다 증류주를 선호한데 따른 것으로 맥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MRI-시먼스가 지난 가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연령대 가운데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



▲마켓 맥주코너에서 한 소비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대의 술 소비량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58%가 지난 6개월 사이에 술을 마셨다고 말했는데, 이중 증류주를 마셨다는 사람(87%)이 맥주(56%)보다 많았다. 많은 사람이 체중 감량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술, 특히 맥주를 멀리했다.

대마초도 맥주 소비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 투자은행 TD코웨의 비비엔 아저 분석가는 기호형 또는 의학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일부 소비자가 음주를 대마초 흡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 규모는 290억달러로 추산됐다.

TD코웨는 대마초 이용자가 향후 5년간 1천800만명에 이르는 반면 술 소비자는 200만명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녀 명문대 진학 위한 고액 컨설팅 성행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고액의 대입 컨설팅에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CBS뉴스는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부유층 가구에서 자녀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6년 동안 수십만 달러에 고액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부유층을 상대로 한 고액 컨설팅 회사들은 그들의 자녀가 중학생일 때부터 6년간의 패키지 50만달러까지 75만달러를 받고 고교시절의 학점 올리기, SAT·ACT 성적 올리기, 특출한 에세이 쓰기 등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들은 학업성적이나 SAT·ACT 성적, 에세이 만으로는 진학하기 어렵기 때문



▲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의 대입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에 특별한 클럽을 신설한 후 활동을 주도해 남다른 경력을 쌓도록 돕고 있다.

CBS는 "아이비리그 혈통을 갖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출세를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부모들에게 자랑할 권리 이상"이라며 "명문 대학 학위는 자녀의 미래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최근 하버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및 동급 학교 졸업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위 1%에 속할 확률이 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액 입시 컨설팅이 성행함에 따라 부유층 자녀가 아니면 명문대에 입학하기조차 어려워지는 현상이 증폭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인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